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와 향후 대응에 관하여

8월 20일
후쿠오카현

7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및 감감이 환자의 수가 증가하여 병상 가동률이 늘어남에 따라 8월 5일에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를 발동하고 의료 제공 체제 정비 요청과 함께 집단 감염 발생 상황을 참고하여 현민, 사업자 여러분께 새로운 요청을 드렸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8월 5일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의 발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음식점 등에서의 집단 감염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의료 제공 체제로의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8월19일 현재

| 내 용 | 기 준 | 8월17일 | 8월18일 | 8월19일 |
|------------------|------------------------------------|------------------|--------------------|---------------------|
| 확진자 수 | 하루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8명이상이자 증가 경향 | 66.3명 | 56.3명 | 66.0명 |
| 감염 경로 불분명자 비율 | 최근 3일간 모두 50% 이상 | 46% (23명/50명) | 51.1% (23명/45명) | 48.5% (50명/103명) |
| 병상 가동률 | 50% 이상 | 66.3% (310개) | 63.1% (309개) | 59.2% (290개) |
| 중증 병상 가동률 | 50% 이상 | 38.3% (23개) | 36.7% (22개) | 28.3% (17개) |

향후 긴 시간을 코로나와 맞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휴업 요청과 외출 자제 등의 규제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회 전체가 감염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사회 경제 활동 제약을 축소하고, 감염 방지를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최근 감염 상태를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현민, 사업자 여러분께 드린 협조 요청 내용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감염 방지에 힘쓰는 사업자 여러분께 새로운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감염 상황 등을 주시하여 만약 감염 확대가 더욱 심각해져 의료 제공 체제의 유지, 확보가 곤란해질 경우에는 재차 현민, 사업자 여러분께 조치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8월 22일 이후의 현민에 대한 협력 요청에 관하여

현민 여러분께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 등(※)에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엄수하지 않는 가게의 이용을 자제할 것. 엄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감염 방지 대책을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의 `감염 방지 선언 스티커`를 확인할 것.



8월 8일부터 21일의 기간에는 아래의 요청을 해제합니다.

- 회식이나 모임 등은 2시간 이내로 하고 2차, 3차 모임 등은 삼갈 것

※ (1)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 제 11 항 제 11 호에 규정되어 있는 유흥시설 중,

-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명칭에 관계없이 손님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
-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바, 나이트클럽 등)
- 주류를 제공하는 노래방

(2) 그 외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이자카야 등)

최근 감염 상황을 고려한 일반적인 요청

최근 학교와 교육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젊은 세대는 가정 내에서 고령자 등 병이 중증화하기 쉬운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할 것

다수가 모이는 회식이나 모임에 관해서는 인원수와 회장의 넓이,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철저한 감염방지 대책을 꾀할 수 없을 때는 삼갈 것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원 간호(데이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이용을 삼갈 것